

90년대 청소년의 세계와 한국의 과제

이 윤 구*

- I. 머리말
- II. 20세기후반과 청소년
- III. 현대청소년의 가치관
- IV. 아동과 청소년에 관한 국제연합의 움직임
- V. 21세기를 향한 한국의 우선 과제
- VI. 맺는말

I. 머리말

“청소년은 새 시대의 주역이다. ...한 마음으로 굳게 뭉쳐 조국발전의 일꾼이 되어, 세계와 우주로 힘차게 나아가 인류의 자유와 행복을 이룩한다.”¹⁾

지난 봄 잠실벌에서 엄숙하게 선포된 「청소년 현장」의 전문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청소년이 한 국가의 장래를 짊어지고 나갈 주인공임을 부인할 나라나 사회는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170여개국이나 되는 이 지구상 인간가족중에서 「청소년 현장」이 제정, 공포된 나라는 제가 아는대로는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자랑스럽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2일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 국제법으로 발효했습니다. 지난 8월초까지 100여개국의 조인과 22개국의 정식 비준절차를 거친 이 국제법의 실천과제를 놓고 9월 말에 뉴욕에서는 77개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국제정치의 역사상 가장 많은 국가원수나 정부의 수반들이 유일한 의제를 가지고 모여서 심오한 뜻을 지닌 토론과 결의를 했습니다. 1990년은 이런 의미에서 청소년과 아동의 세계에 큰 의미를 정표를 세운 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현장」 정신과 실천과제들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아동에 관한 국제협약」을 우리 국민과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세계사회의 떳떳한 일원으로서의 의무를 다 할 수 있을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이 나라 국회의원 여러분을 중심으로 한 CPD 그룹이 청소년에 관한 대화의 광장을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이 땅의 청소년과 아동 모두를 대신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한국청소년연구원장

1) “청소년 현장”, 1990년 5월 12일 선포.

세계 주어진 짧은 시기에 20세기 후반에 급격한 변동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세계청소년이 겪어온 삶의 추세를 간략하게 더듬어 보고, 현대의 청소년이 대체로 어떤 가치관에 의하여 그들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21세기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관찰해 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에 관한 유엔의 움직임을 1959년 「아동의 권리선언」에서 1990년 국제법의 제정공포까지 간추려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위의 배경속에서 우리나라가 현대화(산업사회화, 도시집중화 등)의 거센 물결속에서 청소년을 위해 이제부터 1990년대에 무슨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으며 21세기의 막이 오를 때 우리 청소년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될것을 어렵듯이나마 그려보는 일이 세계 주어진 숙제라고 믿고 외람되게 몇말씀 드려 보려고 합니다.

II. 20세기 후반과 청소년

현대이전의 인간사회에 있어서는 「청소년」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어린이, 혹은 아동에서 곧바로 어른이나 성년이 되었습니다. 어린이의 세대와 어른의 세대사이의 단절이란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릴때부터 세상사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하여 어른들로부터 성인되는 훈련을 일찍부터 익혔습니다. 그래서 성큼 어른이 되어도 큰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근대의 산업화, 전문화, 기계화의 바람이 세상을 휩쓸기 시작하면서부터 양상은 아주 달라지고 소위 문명국가가 되면 될수록 유아원으로 시작하여 초, 중, 고등 교육시설에 가서 공부

를 따로 해야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삶의 현장인 논 밭에서 일손을 돕는 소년이나 집안에서 가사를 배우던 소녀가 곧 일하는 청년청년, 젊은 성인으로 탈바꿈을 하던 농경사회가 물러가고 「청소년기」라고하는 일생중 제일 변화가 많고 불안하던 그러면서도 꽤 긴시기(9~24세)²⁾를 학교나 학원, 직업훈련관계에서 공부만 하는 새 연령집단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거시적으로 세계인구의 추세를 보아도 괄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청소년의 인구층이 점점 두터워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아동의 숫자가 특히 급증해 왔습니다. 15세미만의 어린이(소년소녀, 유아영아)는 1970년에 약 14억이었는데 1990년에 18억이며 2000년에는 20억이 넘을 것으로 학자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10년마다 2억씩 증가한다는 추세입니다.

15세에서 24세까지를 청년으로 보는 국제연합의 기준을 따라 청년층의 인구를 살펴도 유사한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1970년에 6.61억, 1984년에는 9.22억 즉 15년에 39%가 늘고 1960년에 비하면 79%의 급성장을 보였습니다. 50억여의 세계총인구 가운데 청년과 소년(아동과 영아포함)이 30억 정도입니다.

청소년은 오늘날 “내일의 주역”이니까, 오늘날은 우리 사회에서 보조적 역할, 수동적 입장에만 서 있으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그들의 수가 많고 문제가 복잡하고 심해합니다. 극심한 경쟁속의 청년기 교육, 지식과 기술에만 치중하는 동안 생기는 인품이나 덕목의 부재, 고등교육을 받고도 당면하는 청년실업(실업 현상과

2) 청소년 육성법이 정한 연령.

함께 청소년비행의 집단화, 흉악화, 년소화, 약물의 오·남용, 사고사상, 자살등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확산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대세임에 우리는 가슴이 무거워짐을 느끼고 좌시하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청소년」이 많은 국가사회에서 중요한 새로운 집단으로 등장하게 된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0세기가 후반으로 접어든 1950~60년대였습니다. 서구사회에서 그 모습을 들어내기 시작한 청소년의 거센 세력은 전통적인 기성세대나 연장자 중심의 사회질서에 정면적 저항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한국동남으로 막을 연 20세기 후반은 월남전쟁과 그밖의 거의 전 세계의 나라들을 휩쓴 이념냉전과 해마다 심각해 가는 빈익빈, 부익부의 경제적인 추세에다가 정치, 사회, 문화, 교육, 보건등의 모든 삶의 질서와 체제에 대한 젊은이들의 비판이 고조된것이 50년대였습니다. 삶의 “스타일”을 일단은 전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청소년들은 내다 보았습니다.

1960년대의 특징은 청소년의 세계가 보여준 물질문명에 대한 저항운동입니다. 적어도 서구사회에서 그리고 북미주에서는 인종역사에서 일찍이 보지 못했던 풍요와 발전을 이룩했고 아세아, 아프리카, 중남미의 중후진국들은 이 서구사회의 모델을 따라 경제성장제일주의의 개발정책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유네스코가 1968년의 보고에서 자주 사용한 말은 청소년들이 이러한 물질적 풍요사회에 대하여 “대립과 논쟁”(Confrontation-Contestation), “대체문화”(Counterculture), “대치권력”(Counter Power), 그리고 “청소년 문화”(Youth Culture)였습니다.

가족제도, 교육체제, 소비경제사회의 질서, 생산조직같은 기본적인 가치관에 일단정지

(Moratorium)를 외치면서 결혼식을 무시한 남녀의 동거, 제도교육의 정통성을 뒤집어 엮는 학생의 정치참여(Student Power), 비싼 옷을 버리고 누더기 바지와 찢어진 저고리를 선호하는 유행, 공장으로부터 산과 들과 바닷가의 자연으로 돌아가서 간소하게 살아보자는 유토피아적인 사상이 청소년의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극에 달한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배격하고 새로운 공동체의식을 가지고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보자고 나섰습니다. 적어도 뜻은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기성세대는 당혹당황 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초에 이르러 1960년대의 세찬 청소년저항운동에 큰 변화가 왔습니다. 1960년대의 물질풍요 낙관론이 고개를 숙이고 세계적인 경제불황과 함께 청년들이 저항할 경제적 풍성이 시들어 가고 충천하던 학생열풍이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70년대의 청소년 운동은 사회체제에 대한 반항, 저항으로부터 고갈되어가는 자원, 청소년의 실업생존권 자체를 위한 몸부림으로 바뀌고 1960년대에는 학생중심으로 확산되던 청소년문화가 1970년대에는 구라파의 미국의 젊은이들 전체로 퍼지고 아세아와 그밖의 대륙으로 옮겨 가면서 차차 약화했습니다.

1970년대의 지구촌의 경제불황은 청소년의 세계에 극심한 영향을 주면서 불안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개발선진국이나 개도국, 후진국들이 다같이 자원의 편재, 에너지의 자원한계, 이에 따른 고용시장의 위축과 청소년 취업의 어려움이 가히 청소년의 위기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정체나 후퇴가 오면 누구보다도 더 먼저 곤경에 빠지는 집단은 역시 청소년입니다. 노동시장이 좁아지면 맨먼저 감원되

고 또 해마다 취업의 문이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회에서 아주 점점 소외되고 낙후될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의 유토피아와 1970년대의 불황경제 속의 좌절을 거쳐서 1980년대, 즉 지난 10년은 청소년을 포함한 사회전체가 함께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새 사회를 구상하고 토론하고 시도해 보는 기간이었습니다. 성인들이 청소년의 세계를 될수록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고 그들의 사상이나 실행의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측면을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고 그들의 불안과 불평과 비판을 수용하면서 기성세대의 사회체제에 대한 독점, 독주, 독식의 문제의식이 상당히 부각되었다고 생각해 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1980년대가 전체적으로 밝은 10년이었다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면으로는 1960년대의 이념적 저항, 1970년대의 현실적 실의보다 더 힘든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그것은 바로 「청소년」이란 무시해 버릴 수 없는 집단이 꺾어버린 기대, 잃어버린 이상 때문에 자신들의 정체성(Identity)을 흐리게하고 젊은 정열을 반사회적, 비도덕적인 일에 소모하는 경향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집을 뛰쳐나가서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고 학교에서 성폭행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약물을 오·남용하고, 자살하는 사건들이 물질문명의 선진국에서 흔히 보는 사회병리 현상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중후진국가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성세대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해 보려고 힘쓰지도 않는 이 젊은이들의 문화와 그들의 가치관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좀 고찰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세대차와 세대간의 깊은 골을 이해함이 없이 오늘의 청소년 문제가 해결될 수는 결코 없습니다.

III. 현대 청소년의 가치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좋은 학교를 다니며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유명한 사회에 취업이 되고 그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할수록 많은 보수를 받아 캐딜락차를 몰고 다니며 부유층이 사는 주거지역에서 가족수영장도 꾸며놓고 사는 것을 이상으로 간주하던 의식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젊은 미국의 광고업회사의 사장은 위와같은 가치관으로 생각하면 대단히 성공한 모델이어야 하고 그래서 만인의 동경의 대상이어야 할 터인데 현대 청소년들의 판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풍요로운 삶속에서 공허감을 느끼고 무엇 때문에 인생을 이렇게 일만 죽을지경까지 하고, 이것이 과연 올바른 인생인지를 아주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이 젊은 실업인은 토로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 젊은 여성은 다시 인류사회가 일찍이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을 이렇게 피력합니다. “최근 너무 피곤해서 잠을 못이룹니다. 밤에 아주 늦게나 집에 오고, 술을 과음하게 되고 마리화나를 많이 흡입하고, 남자친구가 너무 많아서 어찌나 피곤한지 잠을 잘수 없습니다.”³⁾ 정신과 의사가 이 젊은 여인에게 조금은 하고 싶은 일을 자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권고했을때 이 환자(?)의 반문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정말입니까? 아니,

3) 천석보 : 현대약자론, 흥문당(일본 : 동경).

하고 싶은 일을 안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십니까?” 이런 대답이 아마 오늘의 청소년 문화를 단적으로 상징해 주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러한 의식의 저변에는 참으로 무엇이 깔려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청소년연구의 대가 양케로비치박사의⁴⁾ 해답은 지금 미국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도덕적사상이 청소년에게 팽배해서 상대적으로 가족이나 이웃과 사회에 대한 의무감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 적지않은 사회과학자들이 이러한 새로운 청소년의 의식, 가치관, 도덕성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아마도 제일 팔목할 만한 대표적 연구는 스웨덴의 한스 재터버스박사⁵⁾를 위시한 사회과학자들의 조사연구가 아닌가 합니다. 그들이 하나의 개념으로 현대 청소년의 가치관을 정리해 본 결과로서 “Expressivism”-자기표현 중심주의라고나 번역을 할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자신이 속한 대아를 위해 힘쓰는 의식으로부터 자신에게 우선 충실해야 한다는 생각이 청소년들의 지배적 사고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표현주의”를 기초로 하여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후들은 “창조성의 발휘”, “자율적 고찰의 표현”, “권위를 배척하는 태도”, “지위보다 자기표현에 충실”, “쾌락추구의 중시”, “새로운 경험의 갈망”, “지구 공동체에 대한 열성”, “사회적·사결정에의 참여”, “모험적 경향”, “자연과의 친숙”, “자기 내면적 성장의 관심”⁶⁾ 등입니다.

이러한 증상들을 다섯 종류의 철학으로 분류 구성해 본 연구자들은 “자기표현주의 성공관”, “자연과의 조화된 생활”, “자치”, “쾌락주의”, “공동체주의(Community)”를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외면적이고 형식적인 생활보다는 내면적이고 잠재적인 자신의 내적생활에 치중하여 남이나 사회의 전통적인 성공의 개념에 유의하지 않습니다. 자기에의 충실, 자기답게 살아 보려는 노력이 우선합니다. 긍정적인 점이 없지만 윤리나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면 위험천만입니다.

둘째로, 현대의 청소년들은 20세기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인간과 자연과의 투쟁, 인간과(인간과)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자연과피와 인간 부패를 염려하고 근본적으로 배척합니다. 적자생존을 일단은 부정합니다. 이 철학이 그르다고 할수는 없을듯 합니다. 다만 현대사회의 부조리나 갈등속에서는 비현실적인 유토피아의 꿈으로 치부받게 될수 있습니다.

셋째로, 자기외의 일체의 권위에 대하여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자기를 자기답게 다스리기 위하여서 남에게 복종하거나 억압당하지도 않고 남을 강압하거나 굴종시켜서도 안 된다고 이 세 철학은 주장합니다. 권위주의를 덜어놓고 배척한다기 보다는 개인의 자율·자치권을 존중하려면 권위적 방해요인이 될수도 있기 때문에 기피한다고 합니다.

넷째로, 향락주의(Hedonism)가 청소년의 철학인 까닭도 좀 이해를 해 보려고하면 수긍이 가는 점이 있습니다. 사람의 자연스러운 욕구 중의 하나는 쾌락입니다. 인간의 본성인 성의

4) D. Yankelevich.

5) H. Zetterberg.

6) 천석보 : op. cit., p.216.

욕구, 행위에 의한 쾌락을 굳이 부자연스럽게 억압하는 것은 그리 옳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이론인듯 합니다. 사회적인 굴레가 개인의 자유로운 독립적 의지를 구속하는 것은 “표현주의”에 위배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철학은 예나 지금이나 철저하게 통제되고 자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윤리의 파괴는 인간의 정글 동물로 후퇴시키고 말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로, 청소년들의 거울같이 맑은 마음으로는 현대사회가 공동체로서의 연대성이 너무도 약화되어 있다는데 깊은 우려를 통감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을 이어주는 따뜻한 온정이나 어려울때 서로 돕는 협동의 정신과 행동이 너무도 없다는 판단이 젊은이들의 비판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제시한 자기표현주의, 향락주의와 정면으로 상처하는 이상이나 가치관으로 보일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통찰해 보면 꼭 그렇게 생각할 일도 아닙니다. 내 욕구나 쾌락을 성취하는것이 중요하다면 할수록 남의 욕구와 기쁨도 똑 같이 존중되어야 함을 인식하면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인 “소아”(소아-ego)가 “대아”(大我-Super ego)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통제 될수 있어 조화로운 사회가 가능하게 된다고 그들은 믿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대 청소년의 이러한 가치관은 원천적으로 크나큰 모순을 안고 형성된데 있습니다. 이성적으로야 개인과 사회의 조화나 사람과 자연의 균형있는 발전, 통제받는 향락, 타율보다는 나은 자율가치등이 다 가능하고 바람직스럽지만 현실은 꼭 그렇게 합리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생활의 현장은 오히려 감성, 양심과 욕심이 한데 엉켜 움직이고 있고 역사는 이러한 갈등과 모순의 반복이라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청소년의 가치관을 놓고 우리는 한 두가지 얻어야할 교훈이 있습니다. 우선 이들이 주장하는 5대철학을 기초로 한 “표현주의”는 결코 그들의 창작물이 아니라 는 점과 그들만의 전유사상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기성세대를 포함해서 인류는 근대에 들어서면서 시작된 산업주의, 기계문명, 물질소유, 자연지배, 편의쾌락주의등으로 인간본연의 착함과 더불어 사는 혼을 차차 상실해 오면서 너무도 틀에 박힌 전통적 가치관에 사로잡혀 인간성 자체, 삶의 깊은 뜻을 잃거나 흐리게 만들고 이러한 문명의 위기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다같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이러한 현대인의 표부림을 기성세대보다 좀 더 강하게 절실하게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보여 주었을 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사회의 역사속에서 젊은 세대의 이러한 반항, 저항문화가 발전의 모체였다는 사실입니다. 주어진 전통적 유산을 그냥 받아 아무 의심없이 대대로 살아 왔으면 오늘 우리는 아직 원숭이 세계를 벗어나지 못한 채 그저 먹고 마시고 살다가 죽은 단순한 동물적인 삶을 계속하고 있을것이 분명합니다. 오늘의 청소년들이 기성세대가 염려하는 그들의 새로운 문화와 가치관을 보여주는 그 깊은 바닥을 들여다 보면 금전만능 혹은 배급주의, 유물주의 문화의 부패한 체제에 대한 반항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이점을 긍정적으로 받아 기본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만 있으면 청소년자신들이 그들의 모순된 가치관을 정리, 조정, 재정립해 나가면서 이 세상을 좀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나갈 수가 있을 것이라는 낙관속에서 '90년대를 우리는 맞고 21세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IV. 아동과 청소년에 관한 국제연합의 움직임

20세기 후반의 급격한 변동속에서 국제기구 중 가장 중요한 유엔이 청소년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한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1950년대 후반에 시작된 「아동의 권리」 운동과 1970년대 이래 전개되어 온 「청년」에 관한 관심과 활발한 논의라고 생각됩니다.

「아동의 권리」가 국제적으로 거론된 것이 제1차 세계대전후인 1924년이었습니다. 아동이 전쟁후의 고통스러운 상황속에서 각별히 보호를 받아야하고 그것이 힘없는 생명들이 권리여야 한다는 5대원칙으로 된 “제네바 선언”이 국제연맹(UN의전신)에 의해 채택된것은 그때대로는 혁명적인 인류의 결의였습니다. 다시 제2차 세계대전이 끝이난 다음에야 제네바 선언은 강화 확대되었고 1959년에는 「아동의 권리」 10개조가 유엔총회의 결의로 선언되었습니다.

「선언」자체에 큰 의미가 없는것은 아니지만 “선언”이라는 국제적 문서는 그문서에 서명한 국가사회에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권선언”은 1966년에 국제협약(Convention)으로 제정공포되고 회원국이 이 법의 규제를 받도록 되었습니다. 아동의 권리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없이 “세계 아동의 해”를 1979년에 맞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는 아동의 권리가 활발하게 신장되는 10년이었습니다. “아동의 해”의 행사와 업적이 세계 모든 나라에서 고무적으로 이행, 보고되었고 영아 사망률을 극적으로 줄이고 아동의 질병을 치유하고 전염병을 예방하고 초등교

육의 질을 높이며 아동학대, 부관심, 년소자의 노동등을 감소시키는 일등에 힘을 기울였고 그 결과가 세계전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국제적 노력의 상징적이며 총괄적인 조치가 바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고 10여년의 토론을 거쳐서 1989년 11월에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법의 시행규칙에 따라 금년 8월초에 20개비준국의 절차를 마치고 9월 2일에 발효케 되었습니다.

이 법의 내용은 그 골자를 살펴보면 전장에서 유엔헌장을 위시한 인권선언의 정신에 기초하여 아동이 특별히 누려야 할 권리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명시하고 III부 54개조의 본문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제1부(41조항)는 유엔회원국이 지켜야할 아동의 권리보장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 18세까지의 사람을 아동으로 규정하고(제1조) 이들을 국가사회가 먹이고 기르고 가르치는 궁극적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10~14세의 어린이들이 나라전체의 노동인구의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아직도 있는 지구촌으로서는 적지않은 과제입니다. 중학교를 시골에서 마치고 서울로 올라와서 일하며 공부를 해 보려던 어린이가 새로 얻은 공장에서 수은중독의 직업병에 걸려서 몇달만에 숨을 거둔 일이 지난해 있었고 어찌면 오늘도 그런 소년이나 소녀가 있을 지도 모르는 우리나라도 이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국가중의 하나가 됩니다.

아동의 권리가 행정, 사법, 사회복지 시설을 포함한 모든 제도속에서 우선적으로 취급되어야 한다(제3조)고 명백하게 강조합니다. 부모나 사회나 국가가 아동을 제1순위로 우선적 취급

을 하고있는 나라가 아주 귀합니다. 어린이들의 발언권이 존중되기 보다는 묵살되는 경우가 많은것은 설명의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 생명을 어른들이 마음대로 하는 “소유물”로 간주하는 의식에 혁신적 변화가 와야 합니다.

부모, 보호자와 국가사회가 아동의 생존권을 책임지도록 이 법은 명하고 있습니다. 건강과 영양, 주택과 의복(제24, 27조)의 적합한 공급, 학대와 착취, 전쟁과 마약등으로부터의 보호(제22, 33, 34, 36, 38, 39조)의 필요성과 책임, 장애아동과 소수그룹의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배려가(제23, 30조) 법적으로 요청되고 있습니다. 매일 3~4만명의 어린 생명들이 기아, 질병, 그리고 부모의 무지와 무관심으로 죽어가는 이 인간가족에게 막중한 세 과업이 아닐수 없습니다. 선진국이나 중진국에서도 너무 흔한 학대, 방치, 성폭행등이 이 법에 의하여 엄하게 다스려져야 하게 되었습니다.

신체와 정서, 그리고 도덕적 심령적 성장과 발달, 특히 배울 권리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제27, 28조) 어떠한 경우라도 아동이 사회적보호의 울타리밖에 있어서는 안 되며 최소한의 의무교육이 재정적 부담없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이 법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 법의 정신이나 이 조문이 우리나라 교육현실을 조명하게 될때 적지않은 문제들이 드러날 것을 우리는 눈여겨 보아야 하게 되었습니다.

한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면 “이름과 국적”을 가지고 “부모가 누구인지”를 알 권리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제7조) 이름도 국적도 분명치 않고 부모가 누구지도 모르는 아동에게는 국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8조) 사생아, 혼혈아, 기아, 미아가 아직도 많은 이 강산의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조문입

니다.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해한 시청각 자료들을 엄격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협약은 못박고 있습니다(제17조) 잡다한 불건전한 음반이나 비디오가 홍수처럼 떠다니는 우리 사회가 특별히 새로운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분야입니다.

해외입양은 피입양아동의 복지를 위해서 행해져야 한다고 합니다. (제20, 21조) 보내는 나라의 빈곤이나 받는 나라의 일방적인 수요에 응하기 위해 아동이 이용되어서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가 특히 정책의 전환을 가져와야 합니다.

이 역사적인 국제협약의 발효일을 전후하여 두가지 큰 모임이 있었습니다. 지난 7월 25~27일에 세계종교평화회의(WCRP)는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세계 아동을 위한 세계종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선언문과 행동강령을 채택 하였습니다. 아동의 살아남을 권리를 비롯한 모든 보호조치는 궁극적으로 생명에 대한 경외와 인간가족의 번영을 위한 기성세대와 특히 종교의 책임임을 인식하고 행동에 임할 것을 다짐하는 모임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큰 모임은 9월 29~30일에 유엔본부에서 있었던 “아동의 권리를 위한 세계정상회담”이었습니다. 부쉬 미국대통령을 위시한 77개국의 세계정상이 오직 “아동의 권리”라는 유일한 의제를 놓고 회집한 일이 역대미증유의 사건이었습니다. 그저 모여서 화려한 회의실에서 아름다운 결의문을 채택한것이 아닙니다. 4만명의 가까운 어린 생명들이 날마다 무참하게 죽어가는 오늘날 그들중 2/3, 혹은 2만 6~7천 명씩 그리 어렵지 않게 살릴수 있다는 확신아래 그 구체적인 방법을 토의하고 세계지도자들

의 굳은 의지를 천명하는 뜻 깊은 회의였다고 언론은 크게 보도했습니다. 유엔총회에 보고된 이 정상회담의 선언문은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유심하게 검토하고 우리의 활일을 생각하게 하는 주요자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980년대의 유엔의 움직임 속에 또다른 큰 주류는 “청년”에 관한 논의였습니다. 1960~1970년대의 소용돌이속에서 청년의 세계와 지구촌이 심한 진통을 겪고나서 청년에 관한 국제연합의 활발한 토론은 1979년에 총회결의로(34/151) 나왔습니다. “세계 청년의 해: 참여, 개발, 평화”라는 제하에 1985년을 청년을 위한 해로 결정했습니다.

140여개 회원국이 청년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강화하고 유엔을 위시한 국제기구들이 1980년대의 사업을 청년에게 우선순위를 주고 많은 나라들이 청년대책을 진지하게 수립하고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의 해를 정상으로 하여 1980년대에 중점적으로 강조된 정책은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 청년층(1984년 총인구의 19.4%)을 어떻게 하면 소외되고 약화하는 현상에서 사회전반에 걸친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느냐고 하는데 있었습니다. 국제적 경제가 침체되고 불황으로 해를 거듭할때 청년들은 교육과 훈련, 고용, 보건, 주택, 가정복지, 문화와 환경 등 모든 삶의 분야에서 제일 크게 타격을 받고 무력해 지게 됩니다. 1970~1980년대가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청년이 그가 속한 국가사회에서 4대분야: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발전에 어느 정도 참여하느냐 하는 것입니

다. 청년, 청소년, 그리고 아동은 어느 나라에 있어서나 국가예산의 상당한 분야를 투자해야 하고 가정이나 사회도 적지않은 지출을 경주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생산보다 소비가 주로 필요한 연령집단입니다. 그런 이유때문에 중요한 정치적 결정에 청년들을 참여시키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더욱 청년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진보적이며 때로는 혁명적인 이상을 강조하는 까닭으로 기성세대가 의식 부의식간에 기피하고 소외시키는 경향도 혼합니다.

경제적인 분야에서도 청년의 적극적인 참여가 강조되어 왔지만 중요한 기업경영에 젊은이들이 참여하는 일은 그리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비교적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진 분야는 사회와 문화발전 부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청년문화가 사회체제안에서 변화를 이루어나가는 면보다는 새로운 힘으로 그래서 갈등적인 요소로서 커나온것도 사실입니다. 새로운 “리이프 스타일”을 시도시험해 보는 젊은이의 특권, 특기를 살려주는 제도적 장치와 정치의지가 1980년대에 강하게 권장되었던 것은 많은 유엔의 자료가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1980년대의 경험을 통하여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국가의 지도자들이 주의깊게 고려해야 할 네가지 원칙⁷⁾을 제 40차 유엔총회는 명백히 밝혔습니다. a) “한 사회가 청년의 위상과 역할을 분명히 하고 사회가 청년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인지해야 하며”, b) “청년 정책의 수립과 수행에 청년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정부와 민간단체등의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하며”, c) “청년들이 자신들의 욕구와 희망을 표현할 수 있는 단체토론의 광장을 허용하

7) UN/DIESA(1985): *Guidelines for Further Planning and Suitable Follow-Up in the Field of Youth.*

고” d) “그들이 사회제도의 도움을 받는 소비자의 입장과 함께 국가발전의 모든 분야에서 공헌하는 생산자로서의 자리도 인정되도록 정부와 민간기구들의 정부수행 기구가 재조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강조해서 말하자면 인적자원의 개발이나, 청년취업, 주거환경과 자연보호, 청소년 비행예방과 치유, 새로운 문화의 창달, 관광과 국제교류등에 청소년이 앞장설수 있는 제도가 강구되면 한편으로 국가사회의 투자나 예산이 대폭적으로 감소되고 반면으로 중요한 국가정책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집행될수 있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청소년은 국가예산의 소비대상으로 생각해 온 전통을 깨고 그들을 국가발전의 대행자들, 집행자들로 생각하는 일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게 된것이 90년대의 추세입니다. 이 물결을 바로 타는 나라는 현명한 정치를 하게 될것입니다. 이 역사적 대세를 어기거나 둔감한 사회는 세계의 후진국이 될것입니다.

V. 21세기를 향한 한국의 우선과제

그럼 이제까지 생각해 본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가 당면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시급한 과제들을 몇가지만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선 시급한 일 한 두가지가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직접 관심을 가져야 할 현안입니다. 그것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비준절차와 그 사후조치입니다. 늦게나마 9월 25일에 우리나라는 100여개국의 뒤를 따라 아동의 권리 협약에 서명을 했습니다. 유니세프의 이사국으로서 좀 떳떳하지 못하고 시효를 놓친 조처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정부와 국회가 할수록 빠른 시일안에 비준절차를 취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이 국제법을 우리 국회가 비준하려면 물론 우리의 법률들이 전면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몇가지 문제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비준을 하고 국내법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면 됩니다. 문화 선진국은 못 되어도 중진국은 되어야 합니다. 후진국은 면해야 합니다.

둘째로, 지난 5월 중순 잠실벌에서 선포된 「청소년 헌장」이 또 하나의 아름다운 사문서가 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민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뜨거운 정열을 가슴에 품고 자연과 학문을 사랑하며, 한 마음으로 굳게 뭉쳐 조국발전의 일꾼이 되게 하려면 아버지와 스승, 사회와 국가가 해야 할 일들이 태산 같습니다. 말이나 헌장선포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청소년 자신들이 “적성과 능력을 갖고 뒹아 스스로 어려움을 헤쳐 나아가는 슬기와 용기를 갖춘다”고 헌장은 강조합니다. 오늘 이땅의 청소년은 인생의 어려운 시련을 싸워 이기며 살아갈 슬기와 용기를 갖고 뒹는 교육, 삶의 현장훈련을 적절히 받고 있지 않습니다. 적성보다는 성적, 능력보다는 무의미한 암기력만 길러서 사람됨 보다는 기계로 전락하고 있는듯한 느낌입니다. 몇몇중에서 몇등이 중요하지 않고 개성의 특유한 재질을 찾고 기르고 즐기며 자라는 환경이 하루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가정은 청소년이 정서를 가꾸고 애정과 대화를 나누는 곳이다. 아버지는 올바른 삶의 본을 보이며, 자녀는 어른을 공경하는 몸가짐과 밝은 성품을 익힌다”고 우리는 선포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학교와 사회공동체의 책무도 밝

했습니다. 특히 “사회는 청소년이 즐겁게 일하며 보람있게 봉사하는 곳”이라고 헌장은 명시했습니다. 봉사하는 기쁨을 가정으로부터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가 가르치고 상을 주고 청소년이 앞장을 서게 하는 일들을 조직적이고 구체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범죄와 무질서에 항거하는 전쟁은 가정에서 시작되고 봉사정신의 무기로운 이길수 있습니다.

“국가는 청소년을 사랑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인다”고 헌장은 국가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60년대에 시작된 경제성장의 긴 과정속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이 나라가 돌이켜 생각하면 못한일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청소년 아동을 위한 투자에 너무 인색했다는 점이고 둘째로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사회개발에 참여시키는 일에 민감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제라도 청소년 헌장과 어린이 헌장을 우리 행정부와 국회 그리고 사법부가 진지하게 다루면서 국가의 살림을 하는데 헌법만큼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셋째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청소년 헌장」의 정신에 입각하여 정부의 모든 부처청이 청소년의 개발을 참여자로 인정하게 되면 우리의 육법전서가 전면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상처되는 부분,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조문들, 청소년에게 불리한 법률등을 폐쇄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꽤 많은 시간이 걸릴 일이지만 하나씩, 둘씩, 착실하게 고쳐 나가면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입장이 후진을 면하고 선진국의 대열에 뛰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진정한 노력이 없으면 우리는 낙후하고 다음 세대에서 물려줄 유산을 잃게 될 것입니다.

넷째로, 범국민적 캠페인이 진실로 필요합니

다. 지난달 16일 수원지방법원 형사 2부는 9월 4일 5섯살짜리 어린이를 유괴 살인하고나서 부모에게 돈을 요청한 세 청년 처녀(24, 22, 20세)에게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법은 이러한 극악무도하고 인간의 얼굴을 저버린 탈선 범행이 앞으로는 없으리라는 보장을 해 주지는 못합니다. 영아의 유기, 미혼모의 임신, 고아의 해외입양, 국민학교 어린이나 유치원생의 유괴, 중학생의 성폭행, 고등학생들 사이의 악물 오·남용, 재수생들의 고민과 자살, 대학생들이 겪고 있는 정체감의 상실과 취업불안, 청소년들의 근로와 청소년 근로환경이나 조건의 열악성을 일시에 한두가지 정부의 시책으로 개선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비상한 대책과 함께 범사회적인 청소년 운동이 일어나야 할것 같습니다. 현행 청소년 육성법보다는 훨씬 폭넓고 깊이있는 정책, 예를 들면 “청소년 기본법”이 제정되고 국민 모두가 청소년에게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는 운동이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섯째로, 이 나라는 경제성장의 상당한 부분을 청소년을 위해 재투자를 하는 민족적 결단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청소년 주무부처가 생기고 최근에 강화되었지만 오늘의 청소년 과제의 크기와 심각성을 바로 인식한다면 올림픽을 치루기 위해 쏟은 국가적 정성과 예산의 뒷받침보다는 많은 과정의 투자가 없이는 안 될것입니다. 청소년 정책사업을 지원한 목적세의 신설도 고려되었으면 어떠할까 합니다. 청소년 특별기금의 설치도 바람직한 일입니다. 어찌면 시한부로 1990년대를 위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청소년 대책회의같은 기구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느낍니다. 정부와 경제단체를 비롯한

범 국가적 노력이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섯째로, 언론이 져야할 책임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을 다소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청소년(면)을 신설하여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에 대한 사회적인 격려, 칭찬을 아끼지 않는 적극적 언론보도가 필요합니다. 어른의 잘못은 아주 미미하게 보도하고 청소년의 비행은 머리기사로 다루는 버릇을 언론 스스로가 바꾸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물의 규제와 통제를 매스미디어가 앞장서서 하게되면 이땅의 청소년 문제는 극적으로 감소될 것입니다.

VI. 맺는 말

최근 미국 국회를 방문했을 때 미국의 심각한 가정, 청소년, 아동의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몇분의 하원의원들과 나누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아동, 청년, 가정을 위한 종합적 서비스법률”안(*Title XI-Coordinated Services for Children, Youth, and Families*)이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법률의 제목은 “미국 청소년에 대한 종합 서비스법-1990”이라고 약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예산을 각주 정부나 민간 단체로 할당하거나 보조하는 방대한 법률을 “Young Americans Act of 1990”라고 명명한 것부터 대단히 고무적이었습니다. 전문적 행정기구와 설치, 예산지원 절차 보건의업 등과 함께 “미국 청소년에 관한 백악관 회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20세기 후반의 세계 청소년들, 그들의 철학이나 가치관의 혼란, 국제연합의 움직임등으로 미루어서 우리나라가 21세기를 향해 오늘부터

시작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는 청소년의 내면적 성장과 도덕적 수양, 그리고 국제사회의 일원은 건전하게 그들이 자라도록 우리 기성세대가 도와주는 일입니다. 이 일 보다 중한 일이 있을것 같지 않습니다.

산업선진국이 되고, 교역10대국안에 들어가고, 남북이 하나로 다시 되어 세계사회에서 빠지지 않는 나라가 될 때, 이 나라를 이끌고 갈 젊은이들이 어두운 가치관과 부패한 환경에서 약하고 무기력하고 병든다면 우리 선조들과 우리 세대가 땀과 눈물과 피를 흘려 이루어 놓은 이 거래의 유산이 지켜지기 힘들고 부끄럽게 후퇴하는 민족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두려움이 제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의와 실망에 붙잡힐 까닭은 없습니다. 우리 청소년은 아직 건전합니다. 어른들의 모습을 그대로 흉내내며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을 뿐입니다. 소수의 청소년들이 탈선하고 비행하고 범법을 하고, 폭력화, 흉악화, 년소화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대다수의 우리 청소년들은 이 어려운 시대와 사회를 슬기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21세기가 아세아를 주무대로 막을 벌써 서서히 울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무대의 중앙에 주역중의 주역이 우리 청소년들임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5대양 6대주의 바다끝 땅 끝까지 7천만 거래의 아들 딸들이 50억여의 인간가족속에 빼어난 지도자들로 종횡무진 달리고 날으는 그 날을 꿈꾸어 보면서 그 길을 열어주는 영광스럽고 거룩한 과제는 국회와 행정부 그리고 국민 모두가 온갖 노력을 기울일만한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아니 우리 모두의 신성한 의무입니다.